

원희룡 장관, ‘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제공조 행보 계속’

- 미국 모셔널社 직접 방문을 통해 기술·제도·국제협력 등 종합 논의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8일(일)*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社를 방문하여 최고경영진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.

* 한국 시간 기준,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 기준 1월 7일(토) 12:00 ~ 14:00

□ 이날 논의는 국제전자박람회(CES, Consumer Electronics Show)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,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수준과 정책방향을 직접 진단해보고,

○ ‘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, ‘25년 자율주행 버스·셔틀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 정책과 세부 실행전략을 국제동향에 맞추어 점검해보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.

○ 더욱이, 금번 방문은 정부와 해외 주요 자율주행 기업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,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계의 해외진출과 국제기준 선도를 위한 해외협력 활동에도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.

□ 모셔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앵티브(Aptiv)의 합작을 통해 설립(‘20.3월)된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,

○ 하드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결합을 통해 미국 라스베가스 지역을 중심으로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 제공* 하고 있어 정부와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나누기에 최적의 기업이다.

*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기반, 라스베가스 중심 지역에서 호출 시 무료 이용 가능(‘22.8)

- 원 장관은 모셔널 칼 이아그넬마 CEO로부터 직접 모셔널社 기술 현황 및 미국 내 자율주행 정책여건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은 뒤, 모셔널 최고경영진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국제공조·기술 협력·제도혁신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아울러, 면담 이후에는 모셔널社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모셔널의 라스베가스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승행사 기회도 가졌다.
- 원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자율주행의 본격 상용화를 위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 기반 완비 등 정부 역할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며,
 - 대한민국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획기적인 규제 완화,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,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장관으로서 직접 챙길 계획임을 밝혔다.
-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, “'24년까지 안전기준·보험제도 등 레벨4 출시기반을 완비하여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기술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인 노력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 강조하면서,
 - “앞으로 다양한 민간기업은 물론, 국제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공조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통의 교량이 될 것”이라 밝혔다.

2022. 1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